

☐ 차기회장 / ☒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성 명	이 재 형	
소 속	성균관대학교	
직 위	교수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회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부회장에 입후보한 성균관대학교의 이재형입니다. 제가 학회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지도교수님인 박용관 교수님과 함께 1995년 11월 인천전문대에서 개최된 제9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학회에서 학회지 및 논문지 편집 등의 여러 역할을 맡으면서 여러 전임 회장님들과 임원분들, 그리고 학회 회원분들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재료학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제가 앞으로 살아 나가면서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우리 학회를 포함한 국내 학회들의 학술 활동에 큰 어려움이 곧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학회의 주요 회원인 석박사 대학원 학생들과 같은 연구 인력의 감소는 학회 발전뿐만 아니라 더욱 나아가 생존의 문제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갑작스런 재난 등은 학회 운영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부회장의 역할은 내년 회장님이신 신훈규 교수님과 함께 학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동훈 회장님과 여러 위원분들과 함께 미래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향후 2035년까지의 학회 발전을 위한 비전 및 회원 확대, 출판물, 사업운영, 국제화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기전자재료 분야의 발전 없이는 다른 산업들도 커 나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슈퍼컴퓨터 및 데이터 센터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에너지 및 전력기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세계 시장에 대응하고, 성능과 효율이 향상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전기전자재료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회가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을 다루는 새로운 전문연구회들이 만들어지고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년 학회를 이끌어 가실 신훈규 회장님의 미래 비전과 함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전기전자재료학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